여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선정…1조980억 투입

가막만 전역 해양관광 거점 조성

오션 푸드 스트릿 터미널 등 추진

주철현 "총선 1호 공약 이행 감사"

여수시가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로 추가 선정됐다. 여수 가막만 전역에 총 1조980억원을 투입,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서 지역 관광산업의 획기적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조감도〉

해양수산부는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추가 공모 대상 지역으로 여수시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 투자와 연계해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한 대규모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지난 7월 첫 공모에서 경남 통영시와 경북 포항시를 선정했으며 이번에 여수시를 추가해 3곳을 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해양레저관광 기반 확충, 민간 투자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여수세계박람회장, 돌산, 경도, 무술목에 걸쳐있는 5개 사업권역, 2개 관광단지 등 가막만 전역이 복합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조성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1천억원, 지방비 1천억원, 민자 8천980억원 등 총 1조980억원이 투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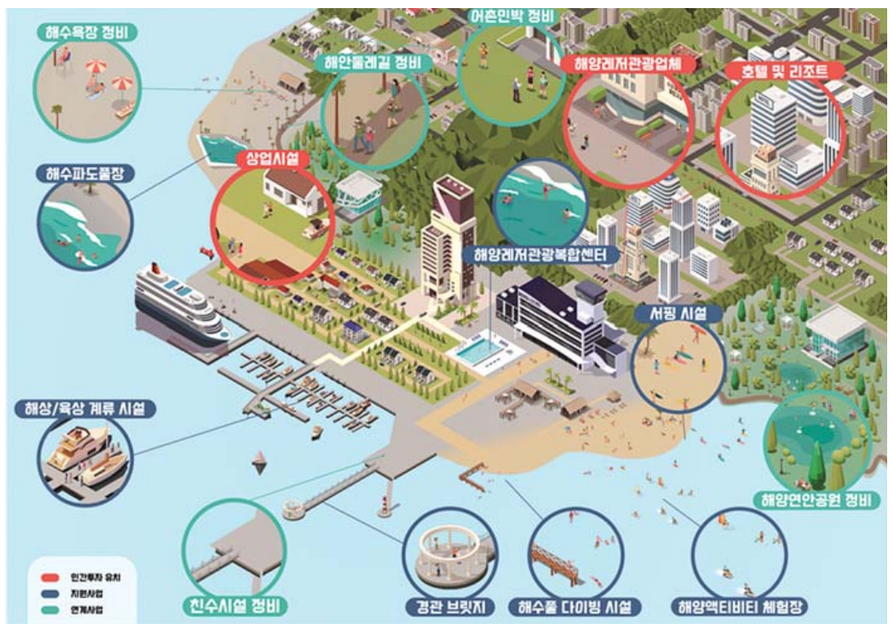
재정사업으로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 계획과 연계한 스마트 해양레저 지원센터, 돌산 우두리 오션 푸드 스트릿 터미널, 경도 복합 크루즈환승센터, 경도-무술목 해역 플로팅 웰니스 파크, 무술목 해수욕장 아쿠아마린 파크 조성 등이 추진된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는 지난달 신규 관광단지로 승인된 무술목 관광단지와 이미 조성 중인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연계한 해양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9일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1호 공약이 이뤄져 지원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 선정은 여수가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해양관광산업이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함께 협력해 여수의 미래를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수·김재정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광산구 첫 시립도서관인 하남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산구 첫 시립 하남도서관 개관

292억 들여 자료실·열람실·문화교실 조성

姜시장 "1자치구 1시립도서관 시대" 강조

광주 광산구의 첫 시립도서관인 하남도서관이 9일 문을 열었다. 북구(무등), 남구(사직), 동구(산수)에 이은 네 번째 시립도서관이다. 서구에는 광주 대표도서관이 건립 중이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292억원(국비 107억원, 시비 185억원)을 들여 연면적 6천916㎡,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시립하남도서관을 건립, 이날 개관식과 함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광산구 최초 시립도서관인 하남도서관은 종합자료실과 열람실, 어린이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문화교실·강좌실·다목적실 등을 갖춰 독서 교육, 문화 교양, 역량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하남도서관은 한 달여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한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도서 대출·반납이 불가능하지만 도서 열람과 전시 프로그램 관람 등 도서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관 기념 다양한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된다.

오는 31일까지 크리스마스 포토존, 지역화가 작품 전시, 크리스마스·겨울 관련 어린이 도서 전시, 그림책 '크리스마스 선물' 삽화 전시, 노벨문학상 작품 등 도서 추천 등이다.

강기정 시장은 "광산을 대표하는 하남도서관 개관으로 광주는 '1자치구 1시립도서관' 시대를 맞았다"며 "많은 주민들이 책과 문화를 즐기고 하남동이 지식과 문화의 양 날개를 갖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박필순 시의원 "광주시 '대자보 도시' 예산 실종"

광주시가 역점 추진 중인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정책이 내년도 본예산에서 사실상 실종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3·사진)은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광주시 본예산 심사에서 "대자보 도시 예산으로 438억원을 편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정작 전략적 신규사업은 찾아볼 수 없는 '껍데기 예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자보 예산 438억원 중 신규 사업은 약 1억3천만원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 중 2건은 시민참여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인 294억원이 저상버스 도입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수단 운영 등 매년 반복되는 필수 경직성 경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대자보 도시는 시민 공감과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뒷받침할 정책 설계와 광주시의 추진 의지, 섬세한 기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신규사업과 예산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일을 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도로 다이어트' 예산 30억원은 설계조차 못하고 전액 불용 처리됐으며 '걷고싶은길 RE100'도 사실상 답보 상태"라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변은진 기자

장관호 前 전교조 지부장 "전남도교육감 출마"

장관호(사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장이 9일 전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6월 전남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 전 지부장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전남 교육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하다"며 "유능한 혁신가, 뚝심 있는 실천가, 현장과 지역 중심 리더십으로 전남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학교 중심·지역 중심·미래 중심 교육 개혁으로 교육공동체를 회복하고 교육 희망의 새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장 전 지부장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성장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람 중심 AI 전남교육특구·전남AI 미래교육센터 구축 ▲교육 참여 주권위원회 설치 ▲'쉼과 여백이 있는 학교' 조성 ▲전문성·자율성 조화 이룬 전남교육청 등을 공약했다.

/박선옥 기자